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장편 '진이, 지니' 출간 정유정 작가

'이야기꾼', '홍행보 증수표' 작가 정유정이 신작 장편을 들고 돌아왔다.



정 작가가 3년 만에 펴낸 소설은 '진이, 지니' (은행나무). 판타지 장르에 가까운 소설은 사육사의 영혼이 유인원 보노보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다.

책 출간 소식을 듣고 기자는 오랜만에 작가에게 전화를 했다. 예상했던 대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 얼마 후 작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신작 소식을 매개로 그동안의 근황을 비롯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다른 인터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작가에게선 조



란 속에서 진이는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고 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한다. 과연 진이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보노보의 이름을 '지니'라고 명명한 것은 작가의 의도적인 서사 전개와 관련이 있다. 여자 주인공 진이와 그의 영혼이 들어 있는 보노보 지니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의 경계를 상징한다.

숨이 멎을 듯한 진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작가는 "파스하고, 가볍고, 경쾌하다"며 웃는다. 이번 소설을 쓰는 데 자료 조사에 6개월, 집필에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원래는 전혀 동물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로지 소설을 쓰기 위해 보노보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

"일본 교토 영장류센터, 쿠마모토 보노보 보호구역, 베를린 동물원 등을 방문해 자료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와 원시림, 인간과 가장 가까운 보노보에 대한 공부를 했다."

정 작가는 그러면서 "보노보는 우리 여성의 특징과 유사한 면이 있다"며 "연대를 중요시하고 감성적인 기질이 있다"고 말했다.

소설은 시종 아름답고 힘 있는 서사로 이어진다. 처음 차용한 판타지 기법이지만 작가는 과감하게 이야기꾼 특유의 특색으로 밀고 간다. 사육사 진이가 인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은 단 3일. "나는 내게 돌아가야 했다. 다음 교자가 오기 전에, 내 몸이 엔진을 완전히 멈추기 전에, 지니에게 지니의 삶을 돌려줘야 했다." (본문 중)

진이는 옛 남자 친구 민주에게 도움을 청하고, 3일밖에 남지 않는 시간은 이야기에 스피드를 가하는 촉매제다. 이 과정에서 남자 주인공이자 화자인 민주는 몇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생사를 오가는 진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보노보를 통해서 생명의 의미를 성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생명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한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는 추천사에서 "흔치 않은 소설이다. 동물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영혼이 큰 화력 가득 미적 충격을 던지며 날뚱뚱 넘는다"며 "작가 정유정은 '종의 기원'에서 우리를 인간 내면 음습한 곳으로 끌고 다니던 '진이, 지니'에서는 아예 종의 울타리 너머로 밀어넣는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육사 영혼이 유인원 몸으로 들어가며 벌어지는 3일간의 사건

자료조사 6개월, 집필 1년6개월 걸려...판타지 기법 첫 도입

금 지친 기운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책을 펴내고 난 뒤라 인터뷰 약속이 적지 않은 듯 했다.

정 작가는 그녀의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에게 언제나 기대 이상을 선물하는 작가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쫓아',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정유정이라는 이름을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번 장편 또한 사육사에 일어나는 일을 스피드 한 문체와 촘촘한 플롯으로 완결했다. 기존의 고도의 긴장감과 극한의 스펀리와는 달리 "경쾌하고 자유롭게 썼다"고 한다. 아마도 판타지 장르가 주는 이야기의 확장성과 무관치 않을 터였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나는 '꿈속'으로 줄달음치는 내 상상을 좀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책을 덮었다. 내친 김에 세 노트를 꺼내 이렇듯 썼다. '생의 가장 치열했던 사육에 대한 이야기', '줄거리와 개요를 전력 질주하듯 썼다'고 밝혔다.

리얼리즘 기법으로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상상

력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처음 시도하는 판타지 차용에 대해 작가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장르든 가리지 않고 이야기에 적합한 방식이라면 가져다 쓴다"고 했다.

소설의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육사의 영혼 이의식을 잃은 유인원 보노보(지니)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후의 사건을 담았다. 한마디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자, 삶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다.

"유인원 사육사로서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 진이는 뜻밖에 집팬지 구조 요청을 받는다. 그러나 구조 작업에 착수하려면 순간 진이는 너무 꼭대기에 매달린 집승이 침팬지가 아니라 보노보를 알게 된다. 마취총에 맞은 보노보(지니)를 안고 차에 탑승한 진이는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진이의 영혼이 지니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설의 화자는 진이와 그녀의 옛 남자 친구 김민주를 교차한다. 두 개의 영혼이 교차하는 혼돈과 혼

판소리 김세종제 춘향가 '이화춘풍' 30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판소리 김세종제 춘향가 공연 '이화춘풍'이 오는 30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612번째 목요일국악한마당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박지운 명창과 고수 목원대학교 이태백 교수의 무대로 꾸며진다.

이날 공연은 춘향의 사랑이야기 마지막 장면인 '재회, 경사' 부분으로 어사상봉, 옥중가, 옥중상봉, 어사출도, 동헌경사 등 대목이 공연된다.

김세종제 춘향가는 김세종 명창으로부터 정음민, 조상현을 통해 박 명창에게 전승된 소리로, 개화 이후 유행한 창극 형식을 따라가지 않고 옛 판소



리 형식을 간직한 게 특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박지운 명창은 제33회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 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목원대, 우석대, 전남대, 중앙대 강사를 거쳐 판소리예술단

'소리화'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010-9008-955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예술로 남도문화예술평가' 사업

전남문화관광재단, 6월 21일까지 공모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장르별 예술 활동의 생태계를 조성해 예술활동을 활성화 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한 '예술로 남도문화예술평가' 기반 조성사업'을 6월 21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전남도내 시·군과 문화예술 단체에서 컨소시엄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시·군 매칭 3억 예산으로 도내 3개 지역(권역)에 문화예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군과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기획을 통한 예술관광 특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문의 061-280-5822. /김미은 기자 mekim@

제64회 호남예술제 성악 중·고등부 입상자

<p>〈심사위원〉 이한나 (조선대 교수)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 박미애 (광주대 교수) 김철용 (목포대 교수) 홍승연 (광주교육대 교수)</p> <p>◇중등부 1,2학년 ▲은상 7 이은교(광주동명중2) 9 차현도(효천중1) 11 이건혁(광덕중1) ▲동상 4 정다운(수원하나중2)</p> <p>◇중등부 3학년 ▲최고상 5 박소현(목포정명여자중3) ▲금상 4 박주하(비아중3)</p>	<p>▲동상 3 양태희(송정중3) 6 김서현(영산포여자중3)</p> <p>◇고등부 1,2학년 ▲최고상 5 정의진(광주예술고2) ▲금상 1 허경빈(광주예술고1) 8 김한나(광주예술고1) 15 정유진(광주예술고2) 16 김유진(광주예술고1) 19 김대경(광주예술고1) ▲은상 12 이송이(광주예술고1) 20 김유빈(광주예술고2)</p> <p>▲동상 3 김수아(광주예술고2) 10 서도윤(광주예술고2)</p>	<p>◇고등부 3학년 ▲금상 3 오경석(광주예술고3) 16 정지윤(순천매산여자고3) 17 강혜림(광주예술고3) ▲은상 6 정동근(광주고3) 15 이흥곤(여천고3) 23 양하경(전남예술고3) ▲동상 4 장유정(보문고3) 13 김여진(대평여자고3) 18 이동훈(여수중부고3) 19 임지원(전남예술고3) 21 송민지(전남예술고3) 22 장세희(전주예술고3)</p> <p>*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p>
--	---	--

노래와 함께 아코디온·아이리쉬 휘슬 연주해요

박혜리 음악회 29일 문예회관

싱어송라이터 박혜리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평가 소극장에서 음악회 '메이드 인 포레스트(Made In Forest)'를 연다.

이번 공연은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는 기획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의 일환으로 펼쳐진다.

유럽 페스티벌과 아일랜드 펍 등지에서 활동하며 여행 이야기를 곡으로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 박혜리는 이날 직접 작곡·작사한 곡을 다채롭게 편곡해 관객을 만난다. '나무가 꾸는 여름 꿈', '러브 어 클락', '넌 깊고 넓은 물', '런던 라시즈', '길 위에 자란 숲', '유일 장미', '낯선 해', '세상의 겨울', '작은 창', '브레튼', '잃어버린 블루', '노르웨이' 등의 곡이 준비돼 있다. 박혜리는 노래와 함께 아코디온, 아이리쉬 휘슬을 직접 연주하고 퍼커션, 기타, 밴조, 피아노, 피플(바



이올린) 등의 세션 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아이리쉬 포크 그룹 '두번재 달'과 '바드'에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 박혜리는 제14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입상 후 TV 드라마 '아일랜드', '궁', '꽃보다 남자'

등 OST 제작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6년 솔로로 독립해 앨범 '박혜리1집, 세상의 겨울'을 발표했다. 현재 연극 음악이나 유네스코의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등 작품에 작곡·음악감독으로 참여 중이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613-823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8일 문화전당서 문화도시 오픈스쿨 '문·전·성·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BK21플러스 지역기반 문화융합관광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문화도시 오픈스쿨 문·전·성·시'가 28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청년, 여행을 기획하라-Travel Maker's Day'로 예술여행도시 광주의 새로운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기획자학교의 다양한 메이커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문전원 BK21+사업단은 지난 1월

'예술여행도시 광주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 도시여행지로서의 광주의 가능성에 공감했으며 '여행기획자학교'를 3개월간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전원 BK21+사업단의 강신겸 단장,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여행 권역의 전고필PM, 쥬스컴퍼니의 이한호 대표, 심비오협동조합의 고영임 대표,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안태기 교수가 멘토링에 나서 여행기획의 이론과 실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문의 010-5373-18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주변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시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